

블랙핑크, 미국 유명 TV프로그램 잇따라 출연



▲ ABC '지미 키멜 라이브'(위)와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유명 TV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블랙핑크는 20일 ABC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했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코미디언 지미 키멜이 2003년부터 진행하는 토크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정치인과 팝스타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다.

키멜은 "K팝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라고 블랙핑크를 소개하며 화상 인터뷰를 시작했다. 제니는 지난해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 출연한 미국 음악 축제 '코첼라 페스티벌'에 관한 질문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꿈의 무대일 것"이라며 "연습생 시절 코첼라 무대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블랙핑크는 팬덤 명인 블링크가 가진 의미, 다른 아티스트와의 만남 등을 놓고 키멜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블랙핑크는 이날 '디 앨범' 타이틀곡인 '러브식 걸즈' (Lovesick Girls) 무대도 선사했다. 블랙핑크는 컨트리풍의 기타 선율과 레트로한 댄스 사운드에 맞춰 힘차면서도 유연한 군무를 선보였다.

21일에는 ABC 방송의 유명 아침 토크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도 '러브식 걸즈' (Lovesick Girls) 무대를 선보였다. 이 무대는 타임스 스퀘어 전 광판으로 생중계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블랙핑크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게 했다. 블랙핑크는 화상으로 진행자 마이클 스트라한과 짧은 인터뷰도 가졌다. 스트라한은 블랙핑크를 두고 "새 앨범인 '디 앨범'으로 기록 경신을 이어가는 K팝 센세이션"이라고 소개했다. 블랙핑크는 이런 성과에 놀랐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제니는 "팬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지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의미한다"고 덧붙혔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ABC의 대표 아침 방송으로, 40년이 넘는 역사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남산의 부장들', 아카데미 출품작 선정

영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이 내년 아카데미에 도전한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남산의 부장들'이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93회 아카데미 영화상 국제장편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남산의 부장들'을 비롯해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인 '반도' 등 총 13편이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출품을 신청했고, '남산의 부장들'이 최종 출품 결정됐다.

'남산의 부장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차지철 등 실존 인물들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다.

영진위는 " '남산의 부장들'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의 다소 어두운 역사를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영화"라며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병헌 배우의 연기도 뛰어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한국 개봉 후 누적 관객 475만 명을 동원했으며 2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 '남산의 부장들' 포스터. 사진=쇼박스

날말퍼즐 정답									
	1 추		2 아	가	3 씨				
4 오	월	동	주		5 앓	6 싸			
리			7 머	슴		울			
8 온	9 수		니		10 방	아			
	11 불	티		12 거		13 비	14 냉		
	석		15 엄	두			각		
	16 권	17 좌		18 절	대	19 다	수		
		20 시	치	미		리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숨은그림찾기 정답